논어 12편 안연 18장 · 원문·풀이

季康子患盜，問於孔子。孔子對曰：「苟子之不欲，雖賞之不竊。」

독음 · 계강자환도 문어공자 공자대왈 구자지불욕 수상지부절

쉬운 풀이(요약) · 위에 있는 사람이 재물을 탐하지 않으면 백성도 훔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季 끝 계 계 / 康 편안할 강 강 / 子 아들 자 / 患 근심 환 환

盜 도둑 도 도 / 問 물을 문 문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孔 구멍 공 공

對 마주볼 대 대 / 曰 가로 왈 / 苟 진실로 구 구 / 之 갈 지

不 아닐 불 / 欲 욕심낼 욕 욕 / 雖 비록 수 수 / 賞 상줄 상 상

竊 좀도둑 절 절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